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11.11.(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재형**	☎044-300-7130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문화와 소비 잇는 상권 상생 특화구역 조성 제안

- 상권 공동상품 개발·빈 점포 활용·고운동 문화·경관 자원 연계 제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경관 자원과 주변 상점을 연결하는 '상권 상생 특화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은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도 주변 점포에서 구매하지 않는다면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으로 늘어날 생활·문화 수요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평소에도 상점을 찾을 이유와 상인들의 공동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9.7%로 전국 평균 14.3%의 두 배를 넘었다. 특화거리 조성 등 기존 사업의 성과를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책로·문화공간과 상점을 함께 육성한 서울 양재천길과 선유도

역 일대 ‘선유로운’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방문객이 걷고 머무는 경험에 체험 프로그램과 상점 이용 혜택을 결합한 결과, 거리의 매력을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실제 인근 상권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의 취향과 인적 자원을 살린 상권 공동상품 개발 ▲빈 점포의 공동 운영 거점 활용 ▲문화·경관 자원을 잇는 특화구역 조성 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강연·취미 모임과 체험 코스를 지역 상품·서비스와 연계하고, 빈 점포는 교육·문화·청년 창업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고운동의 개관 예정 시립박물관과 도서관, 마음안1로 벚꽃길, 한옥마을을 주변 상권과 연결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SNS 입소문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벚꽃길에 보행 동선과 안내 체계, 쉼터, 야간 경관조명 등을 갖추고 상인과 함께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제언도 이어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빈 점포 소유자와 운영 주체를 연결하고 입주 이후 관리도 지원하는 등 문화와 여가 활동이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상권 상생 특화구역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